

[H 갤러리]

OCTOBER COLLECTION

10. 1. – 10. 31.

PHILIP. HAN.

David Hockney(1937 ~ , 영국)

10. 16. 토.

지난달 9월 파리 Chelles 에서 사진 전시회를 마친 조미진 cho mijin 작가께서 David Hockney 전시회 소식을 페이스북 포스팅했다. The Arrival of Spring in Normandy. 2020 이다. 2019년 노르망디에 잠시 머물던 호크니가 코로나 대유행 이동 제한 조치에 발이 묶이면서 1년여를 노르망디에 머무른 시간의 기록으로 부르는 작품들로 영국 로열 아카데미 전시를 마치고 파리 오랑주리 미술관에 도착한 것이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모네의 수련 연작을 전시하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또한 모네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미술관 천장을 투명하게 한 일화도 있다. 이런 소식과 함께 데이비드 호크니 노르망디 연작을 담은 조미진 작가 카메라에 포착된 전시회 풍경은 한 주간 스트레스를 날릴 만큼 감동적이다. 이런 호크니의 노르망디 시리즈가 한국에도 곧 도착하리라 기대한다.

The Arrival of Spring 시리즈는 첫 시작은 2011년 Woldgate 연작이 아닌가 싶다. Woldgate 시리즈는 호크니가 숲 한가운데에 이젤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는 기록 사진이 더 유명세를 치를 만큼 많은 갤러리에게 호평을 받았다. 그 작품 면면을 직접 보지 못한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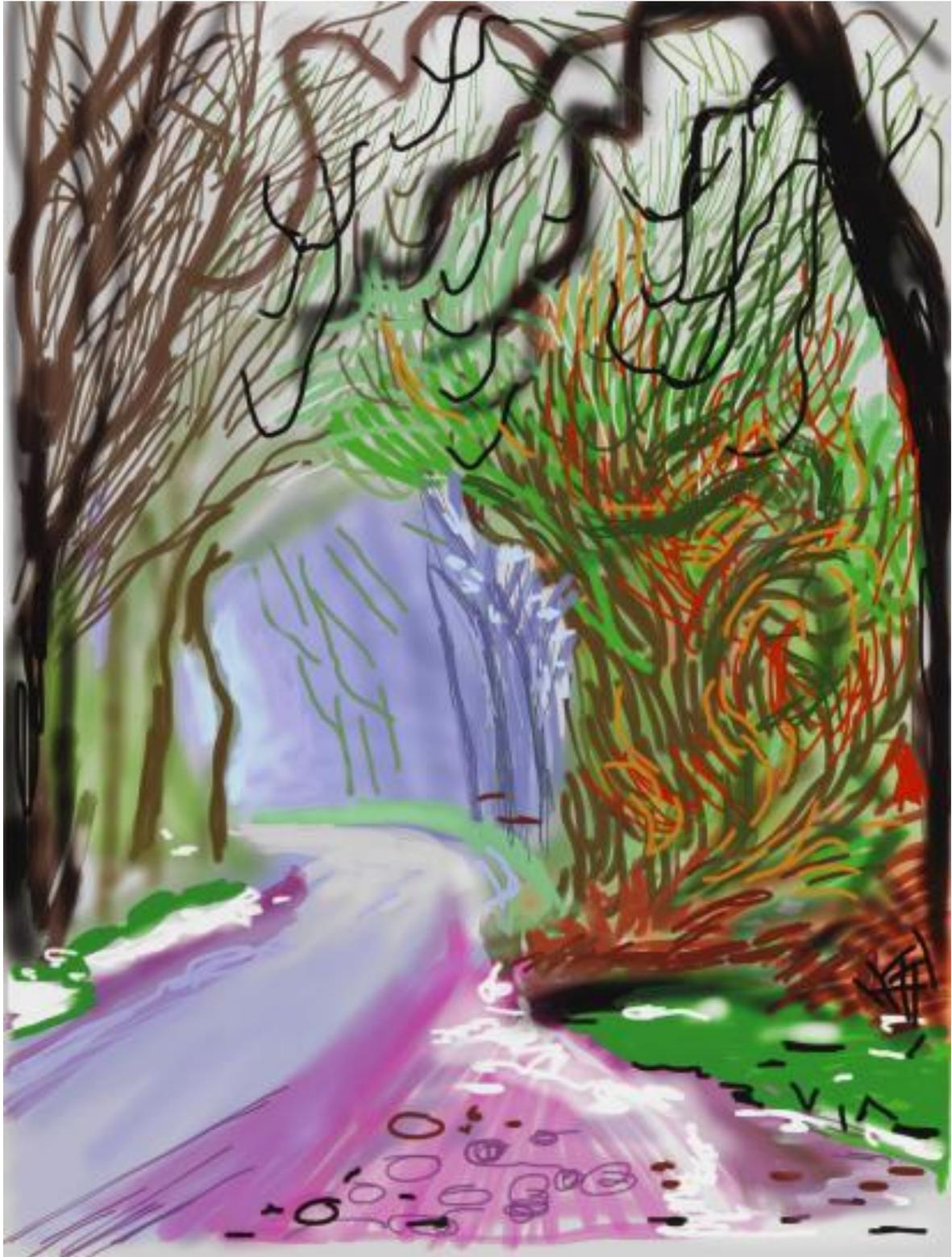
Woldgate 시리즈 중 호크니가 마치 일기 쓰듯 그리는 오브제가 있다. 바로 Woldgate Bridge 이다. 실제 전시회에서는 이 연작이 주목받진 못했다. 게다가 이 Woldgate Bridge 시리즈를 호크니가 총 몇 편을 그렸는지도 정확한 기록도 없다. 여기저기 검색을 하며 작품을 모으면서 대략 20여 편 남짓, 개인 소장과 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 작품 수를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추정일 뿐이다.

이 오브제에 호크니가 특별한 관심을 둔 까닭을 밝힌 바는 없다. 짐작건대 Woldgate 에 들어서면 관문처럼 호크니가 느낀 것 같을 뿐이다. 이를테면 현실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로 여긴 듯싶다. 마치 입장권을 내고 들어가는 놀이공원 게이트로 대상화한 것 같았다. 이런 내 상상을 자아내게 한 작품이 1 월 3 일 작품이다. 길 너머 저편을 이른바 티파니 블루라고 하는 1837 블루로 빛을 낸 것을 보며 든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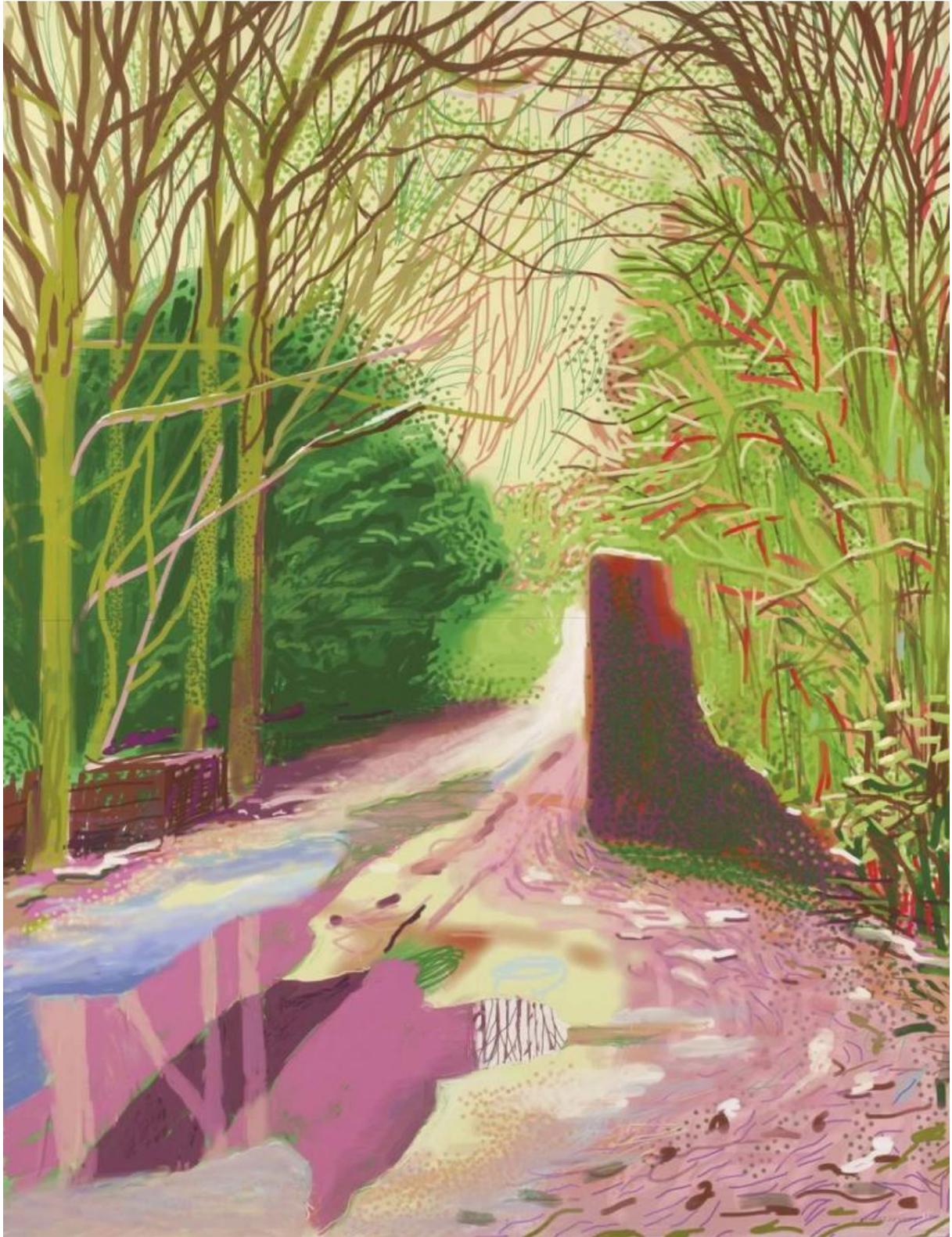
한 곳을 여러 시간대에 다니면서 보는 계절감은 생경한 공간 감각을 자아낸다. 1 월 2 일 작품과 1 월 29 일 두 작품을 보면 또한 그렇다. 변한 것은 없어 보이지만 자연이 겪고 견딘 흔적을 무심히 지나지 않는 호크니 세계관을 엿볼 수도 있다. 자연과 포용하고 있는 호크니 모습을 보는 듯했다. The Arrival of Spring 전시 주제 탄생은 호크니의 이런 심성을 오롯이 담고 있다.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1 January.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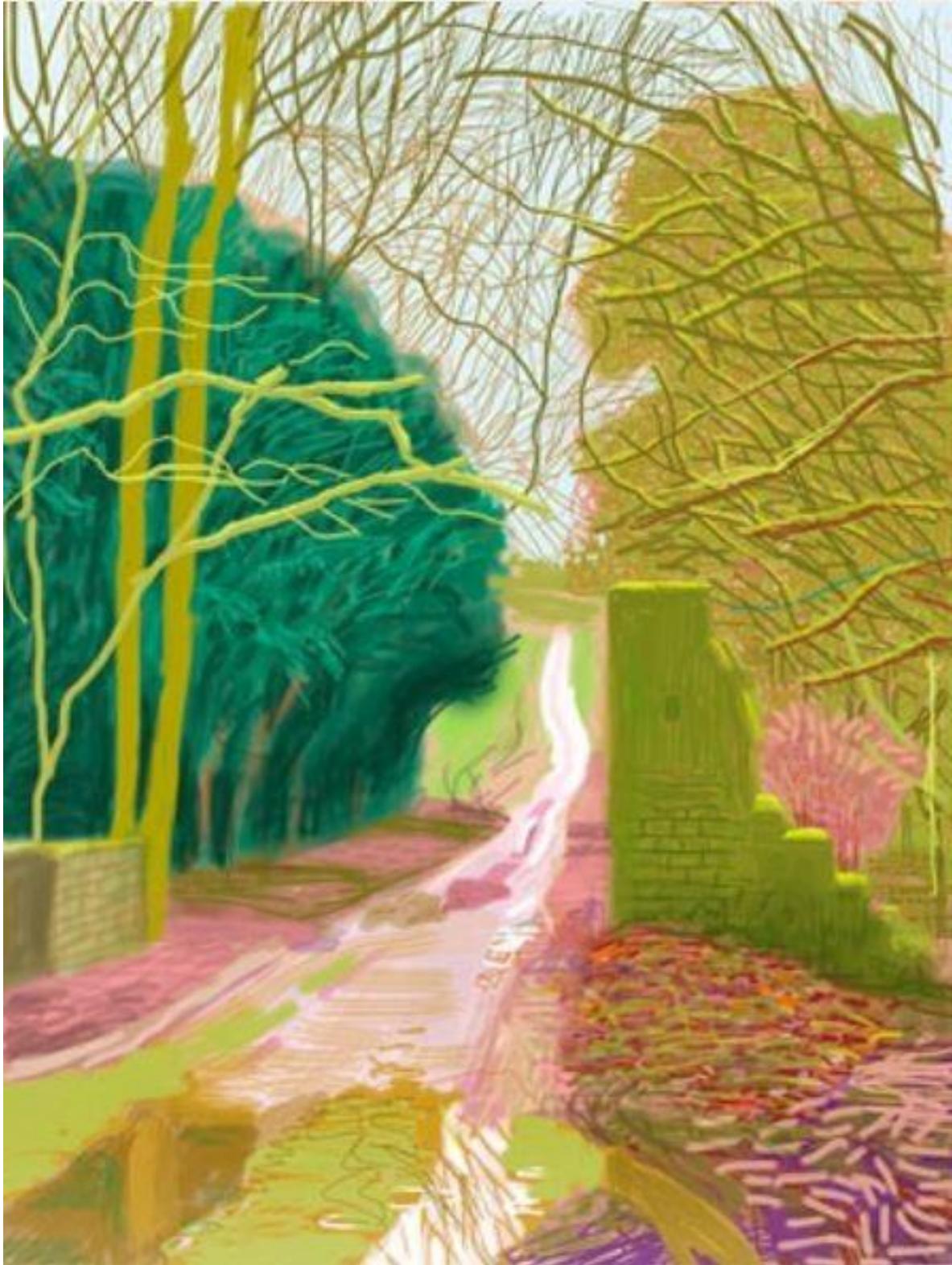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1 January.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2 January.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3 January.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3 January. 2011

David Hockney(1937 ~ , 영국)

10. 24.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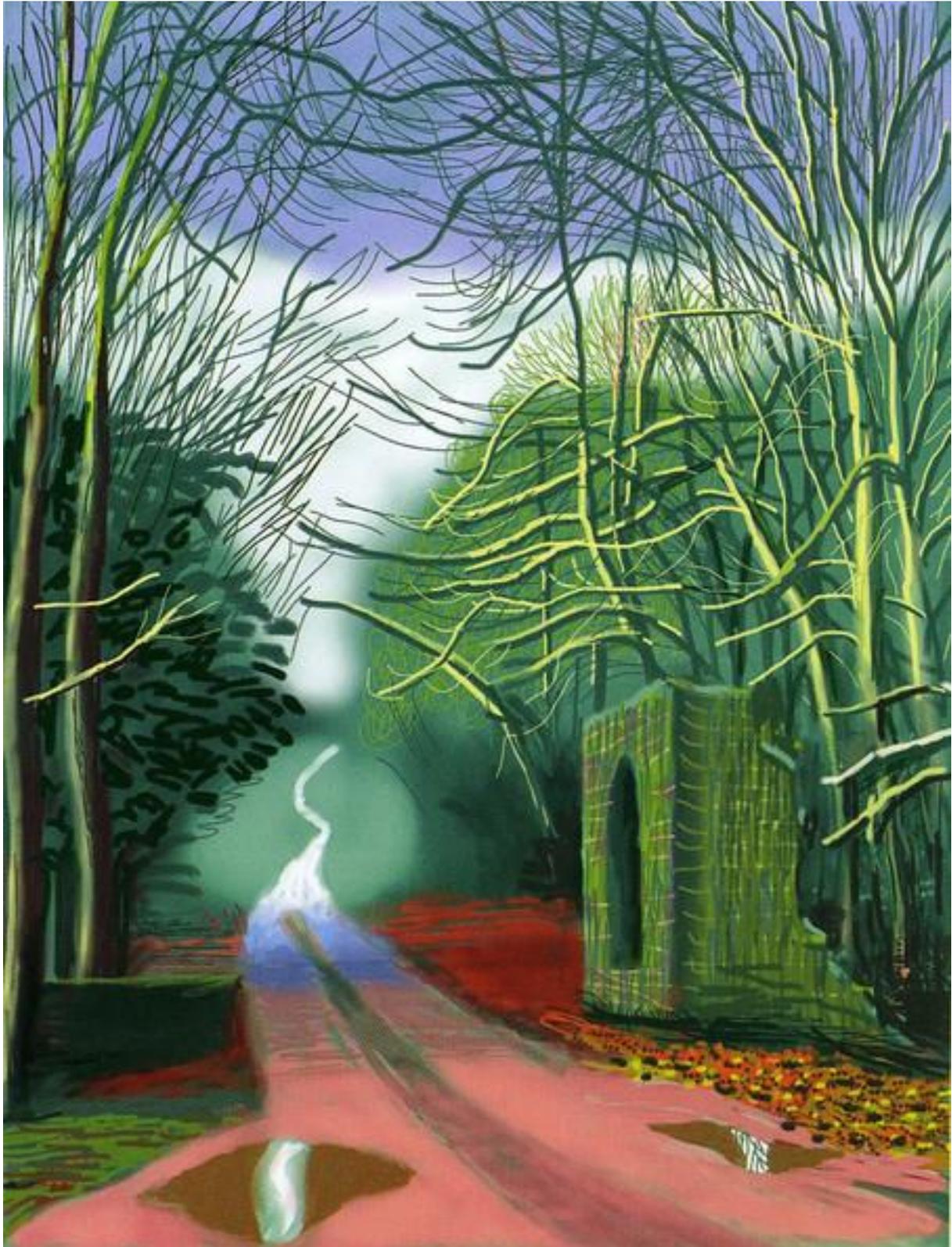
올해 2월 19일 내 다이어리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3월 19일도 마찬가지다. Woldgate Bridge Series 2월과 3월 두 작품 공통점이 19일에 있어 내 기록을 찾아본 것이다. Woldgate 시리즈 여러 작품 중 이 두 작품이 유일하게 날짜 맞춤 작품 같았다. 이를테면 한 달 후에 다시 와서 봐야겠다 싶을 때가 내게도 종종 있어 하는 말이다. 한데 2월 19일 호크니 눈에 들어온 볼드게이트 다리는 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한 미술 평론가에 따르면 호크니는 공감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 느낌을 곧바로 색으로 표현하는 재능이 월등하다는 말을 빌면 2월 19일 호크니 공감각에 들어온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흐릿한 풍경 가운데 유난히 선명한 길은 3월 19일 작품에서는 평범한 볼드게이트 본래 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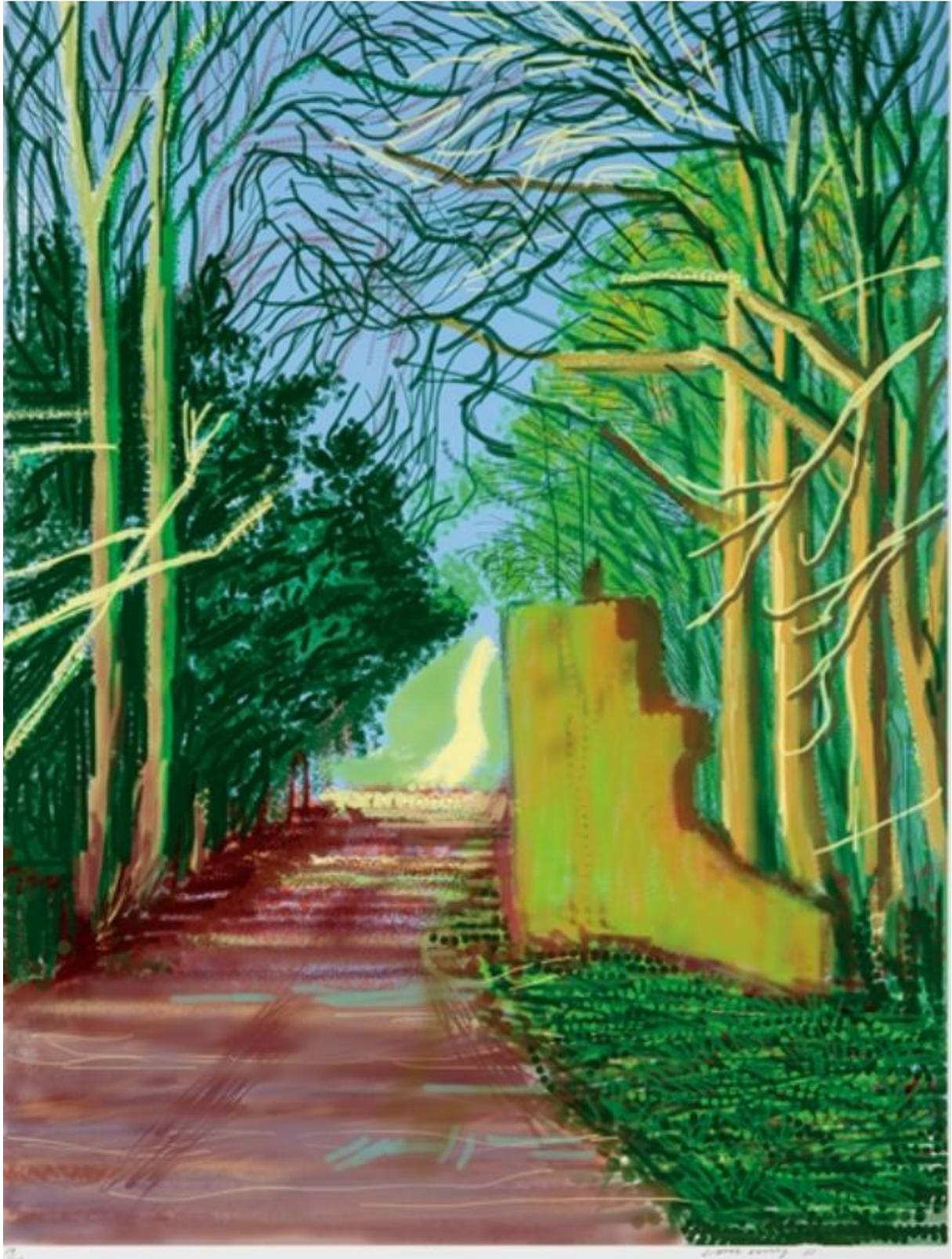
그럼 특별한 점은 2월 19일 작품에 있어 보인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던 중 저 길 너머부터 자신을 뒤 쫓아온 소리가 있었고, 이를 더는 때 낼 수 없었던 호크니가 뒤를 돌아봤을 때 모습, 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강렬한 숨소리가 호크니의 공감각이 발휘한 작품 같았다.

하지만 그 정체가 여전히 모호했던 호크니는 그로부터 한 달 뒤 다시 그 자리에 섰고, 비로소 알아차린다. 자신의 등 뒤를 바짝 따라붙었던 소리가 봄의 정령이 하나 둘 깨어나 자기 자리를 뚫는 소리였음을 말이다. 그 느낌이 비로소 평온했음을 호크니는 3월 19일 작품으로 남긴 듯 보인다.

이 맥락이 어떤 계기가 되었는지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호크니는 Woldgate 시리즈에서 사회 현안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 다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그 시발점이 된 작품이 Felled Totem. 2009 이고, 그 정점이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2011. 15. March.이다.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19. January. 2011



The Arrival of Spring in Woldgate. 19. March. 2011

David Hockney(1937 ~ , 영국)

10. 31. 일.

여느 때처럼 Woldgate 길에 들어선 호크니, 단풍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가지가 별을 찢고 있었다. 이런 물건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가 싶게 손발 모두가 잘려 나간 그루터기를 본 호크니는 무엇에 홀렸는지 재빠르게 스케치를 했다.

볼드게이트 사방팔방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그리며 행복했던 기억은 이 그루터기 앞에서만큼은 내 손발이 잘린 듯 통증을 느꼈다. 이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설마 프로크루스테스가 환생하여 육중한 저 나무를 침대에 눕혀 사단을 낸 것인가. 호크니는 생각에 잠겼고 걸음은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다.

볼드게이트 길을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하는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안 호크니는 공사장 인부와 감독자를 자신의 화실로 불렀다. Woldgate 길과 숲 곳곳을 그린 그림을 보이며 호크니는 그들에게 호소를 했다고 한다. 이 아름다운 여러분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곳을 가꾸고 살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다. 공사장 감독자와 인부는 호크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공사를 중단할 수 없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을 호크니는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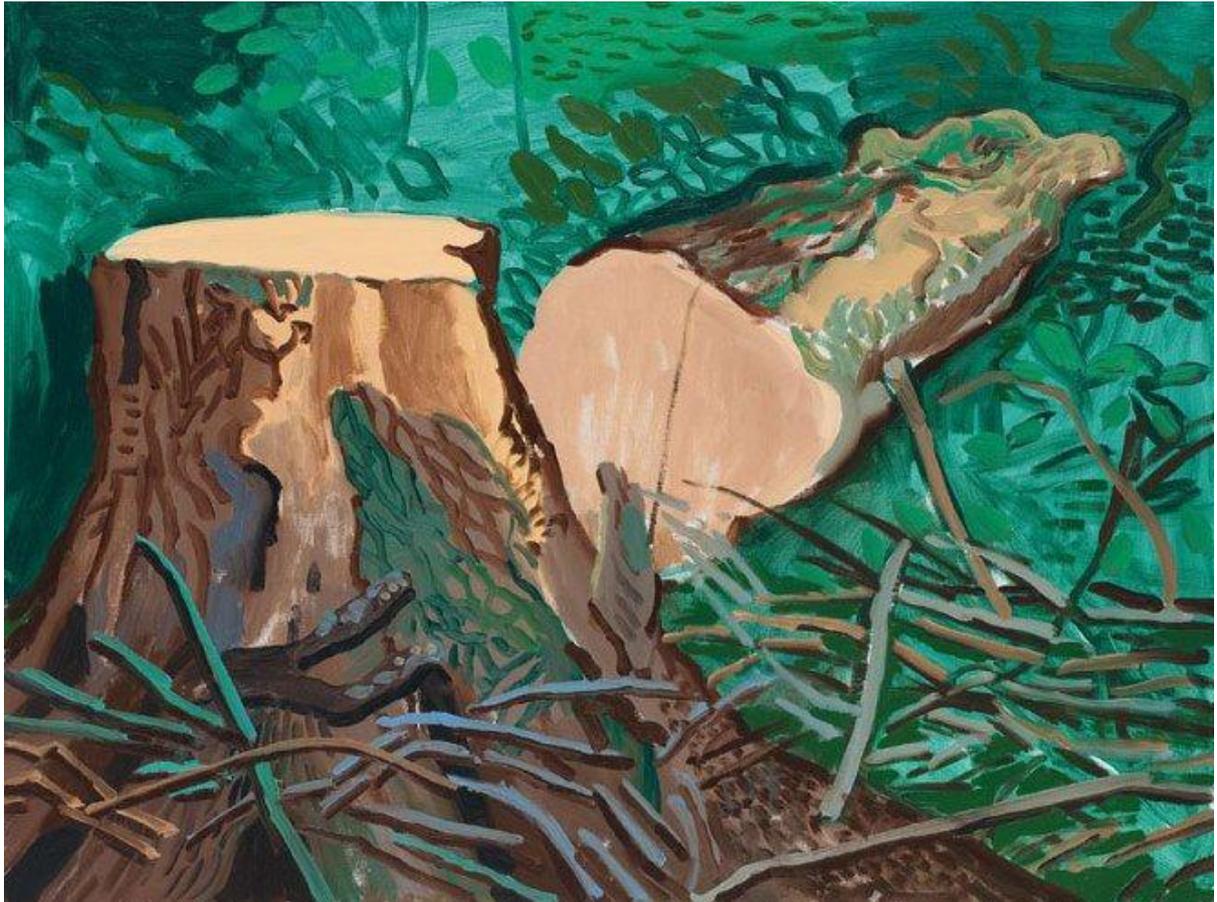
호크니가 유일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한 행적이라는 평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주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있다. 안타까움 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마음 반으로 있다가 이내 잊고 살았다. 한데 호크니가 이 totem 시리즈를 남길 때 마음이 풍경 소리를 낸다. 재건축 승인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도 이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황금 빛 은행나무도 붉은 단풍이 제대로 든 가로수 모두도 듣고 있을 것이다. 나무를 위로하러 나가야겠다.



Felled Totem. 2009.



David Hockney's new sketch of the damaged 'totem' stump, which featured in his painting Winter Timber.



Felled Totem, September 4th, 2009.



Felled totem. 2009.

Epilog

시월 한 달 브런치 H 갤러리, 블로그 [운을탐하다] 글을 성원해주신 독자 분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석 달 전부터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까닭이 있지는 않지만 호크니 작품에 시선이
계속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틈틈이 포스팅하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함께 즐겨 주신다면 그
일이 제게 만족스럽고 행복한 일입니다.

11 월 좋은 일 가득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